

여수 선거구 통합 땀 현역 맞대결 될 수도

박지원 66.6%... 광주·전남 현역의원 중 최고 지지율

정원박람회 공방전 벌인 김선동·노관규 2파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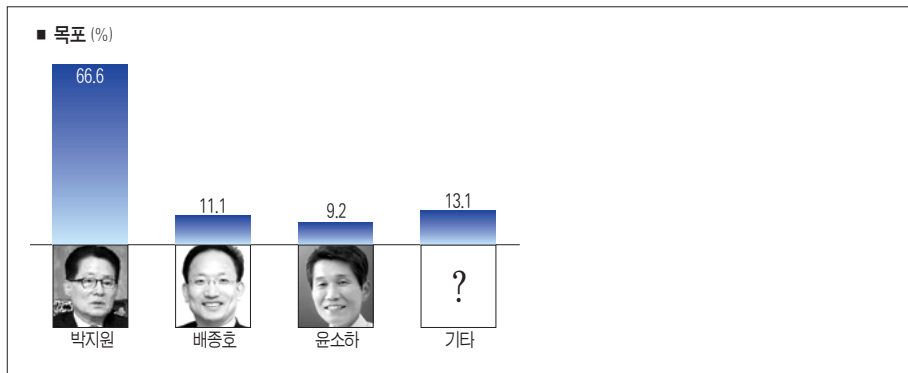
목포

목포는 민주당 박지원 최고위원의 3선 도전이 관전 포인트다. 박 최고위원은 현직 프리미엄에 탄탄한 조직, 풍부한 정치 경험, 높은 인지도 등에 힘입어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해 다른 후보들을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19대 총선 지지후보를 묻는 다자대결 조사에서는 박 최고위원이 66.6%를 기록했다. 이어 박 최고위원에 맞서 최근 봉사단체를 중심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가면서 호시탐탐 국회 입성을 노리고 있는 전 KBS 뉴욕특파원 배중호(민주당) 후보가 11.1%를 기록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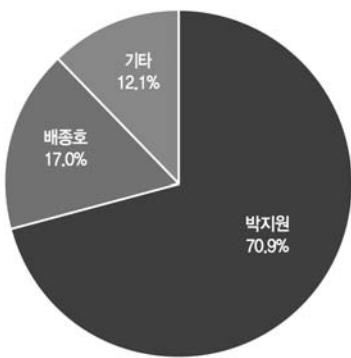
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지고 선거운동에 나선 전 목포교육연대 공동대표 윤소하(통합진보당) 후보는 9.2%를 얻는데 그쳤다. 지지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13.1%였다.

연령별 지지도에서는 박 최고위원이 다양한 연령층으로부터 고른 지지를 얻고 있는 반면, 배 후보와 윤 후보는 특정 연령대의 지



지층이 뚜렷한 모습을 보였다. 박 최고위원은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낮게는 62.9%, 높게는 73.4%로 폭넓은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배 후보는 20대(16.7%)에서, 윤 후보는 40대(13.0%)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나타냈다. 민주당 후보 간 가상 대결에서도 박 최고위원이 배 후보를 크게 앞지른 것으로 조사됐다. 박 최고위원이 70.9%를 기록한 반면, 배 후보는 17.0%에 그쳤다. '지지후보가 없다'는 응답자는 12.1%였다.

민주당 후보 가상대결



순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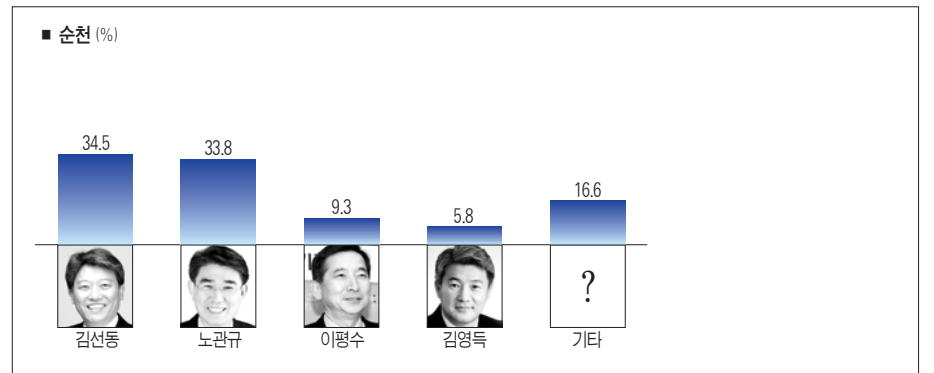
순천은 순천정원박람회 개최 일정 등을 놓고 열린 공방전을 벌인 현역 의원과 전 순천시장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전체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는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34.5%의 지지율로 33.8%를 얻은 민주당 노관규 전 순천시장을 오차범위(±3.1%포인트)내에서 앞섰다.

이어 전 노무현 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수석부대변인을 지낸 이광수 후보가 9.3%, 국민체육진흥공단 상임감사를 역임한 김영득 후보가 5.8%의 지지율을 보였다. '지지후보가 없다'는 응답자는 16.6%였다.

김 의원이 다자대결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미 FTA 단독처리에 반대하던 중 최후단을 던져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인지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.

연령대별로는 김 의원은 30대(40.2%)와 40대(41.4%)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였고, 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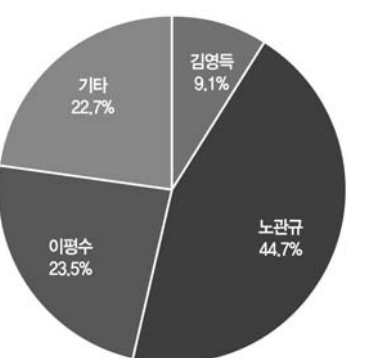


후보는 19~20대(37.2%)와 60대 이상(37.4%)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. 이 후보는 40대(10.1%), 김 후보는 19~20대(12.8%)에서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.

민주당 후보 간 가상 대결에서는 노 후보가 44.7%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다. 이어 이 후보가 23.5%, 김 후보가 9.1%를 기록했다.

1위를 달리는 김 의원은 순천이 또다시 야권연대 지역으로 정해진다면 비교적 손쉬운 선거를 치를 수 있지만, 그렇지 않을 땐 노 후보와 초박빙의 접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.

민주당 후보 가상대결



'시·도의원 비리' 오명에 부동산 가장 많아

'승용불패' 계속될까... 선거구 확정 최대 변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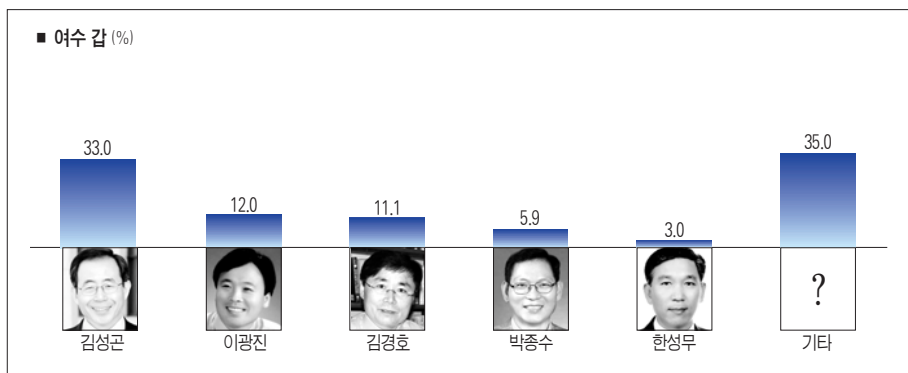
여수갑

관복과 탄탄한 조직력을 앞세워 4선을 노리는 민주당 김성근 의원이 전체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33.0%의 지지율을 기록,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지난해 추석에 실시한 광주일보 여론조사 지지율보다 2.8%포인트 오른 수치다.

이어 여수세계박람회유지위원회 집행위원을 지낸 이광진 후보가 12.0%, 김경호 제주대 교수가 11.1%, 박중수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 교수가 5.9%, 한성무(주)SKD 하이테크 대표이사가 3.0% 등의 순이었다. '지지후보가 없다'는 응답은 35.0%로 부동산이 상당히 많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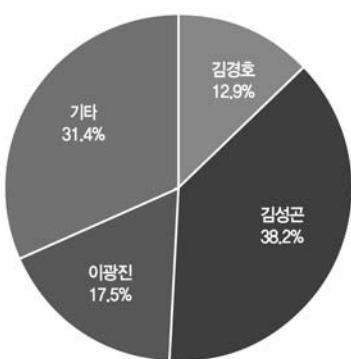
연령별 지지율을 보면, 김 의원은 60세 이상에서 47.2%로 높은 지지를 얻었다. 이 후보와 김후보는 20대(17.9%, 16.7%), 박 후보는 50대(8.5%), 한 후보는 40대(4.2%)층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.

민주당 후보 간 가상대결에서도 김



의원이 38.2%를 기록해 김 후보와 이 후보보다 각각 20.7%·25.3%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. 다만, 여수의 경우 갑과 을로 나뉜 지역구의 통합 여부가 최대 변수로 남아 있다. 만약 선거구가 통합될 경우 현역 의원들 간 맞대결이 예상되는 만큼, 복잡한 양상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. 특히 전 민주당 소속 시·도의원들의 비리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남은 점 등 후보들의 도덕성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난 민심을 어떻게 추스르느냐도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.

민주당 후보 가상대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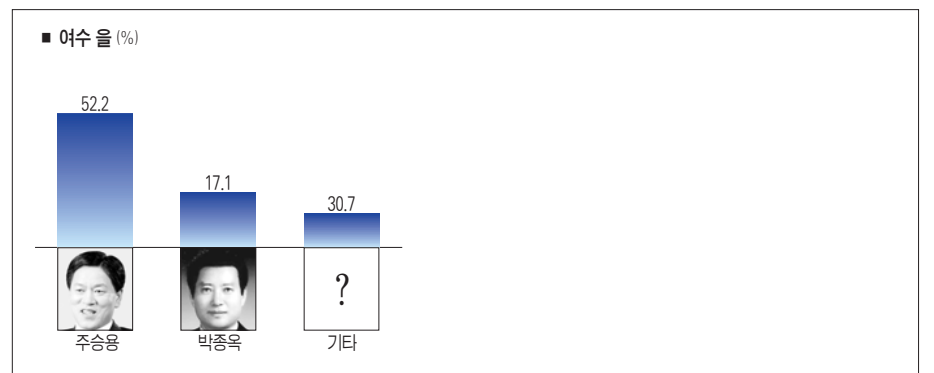
여수을

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압도적인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전체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는 주 의원이 52.2%의 지지율로 17.1%를 얻은 재단법인 명산개발 이사장인 박종욱 후보를 35.1% 포인트 앞섰다. 지지후보가 없다는 응답자는 30.7%였다.

주 의원이 박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지만, 오현섭 여수시장 구속 여파 등 각종 악재로 인해 과거 '승용 불패'라는 명성에는 미치지 못했다. 분석이다.

반면, 지난 16·17대 총선에 출마한 적이 있는 박 후보는 뒤늦게 선거전에 뛰어들었지만, 17.1%를 얻어 짧은 시간에 선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. 연령별 지지도에서는 주 의원이 다양한 연령층으로부터 고른 지지를 얻고 있는 반면, 박 후보는 특정 지지층이 뚜렷한 모습을 보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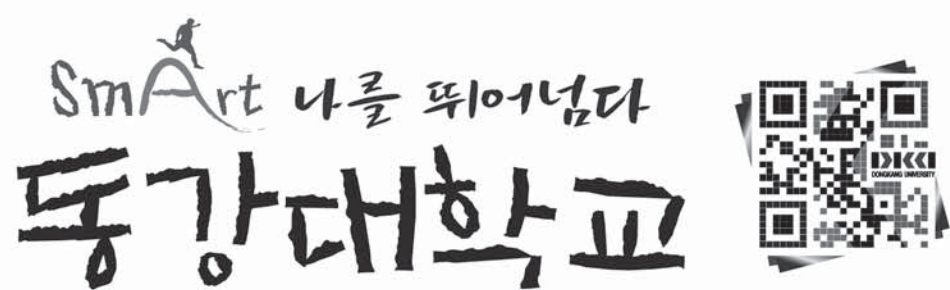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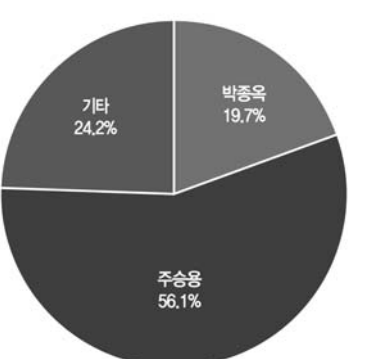
주 의원은 19~20대(50.0%)·30대(48.5%)·40대(50.2%)·50대(54.1%)·60세 이



상(58.2%)에서 고른 지지도도를 보였다. 박 후보는 50대(18.6%)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았고, 19~20대(14.0%)에서 가장 낮았다. 민주당 후보 간 가상대결에서도 주 의원이 박 후보를 크게 앞지른 것으로 조사됐다. 주 의원이 56.1%를 기록한 반면, 박 후보는 19.7%에 그쳤다.

다만, 여수 을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주 의원에게는 선거구 확정 문제가 총선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. 여수 갑과 을이 통합될 경우 김성근 의원의 맞대결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.

민주당 후보 가상대결



2012학년도 신입생모집

입시일정 및 원서접수 방법

전형구분	원서접수 기간	합격자 발표	합격자 등록	원서접수 방법		
				창구접수	인터넷접수	우편접수
정시2차	2012. 1. 9 ~ 2012. 2. 2	2012. 2. 7	2012. 2. 8 ~ 13	우리대학 본관1층 입학지원과	www.dkc.ac.kr www.jinhakapply www.uwayapply www.apply114.com	원서와 전형료를 접수 마감일까지 등기우편으로 송부
정시3차	2012. 2. 13 ~ 2012. 2. 24	2012. 2. 27	2012. 2. 28 ~ 29			

취업을 잡(Job)을 수 있는 미래를 향한 스마트한 선택!



500-714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50
TEL : 062-520-2555, FAX : 062-520-2559